

두터워진 불펜·야수진...젊은 피 활력, 기대감 '쑥쑥'

'Again 2024'...KIA, 스프링캠프 마치고 8일 귀국

5차례 연습경기 다양한 퍼즐 조합...공·수·주구도 윤곽 황동하·김태형 5선발 경쟁 가열, 카스트로 장타력 확인 젊어진 내야, 운용 탄력성 확보...역할 구도 구체화 성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일본 오키나와 2차 스프링캠프가 마무리됐다.

선수단은 불펜과 야수를 중심으로 선수층이 한층 두터워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 캠프에서 KIA는 WBC 한국 대표팀을 시작으로 한화, 삼성, KT, LG와 다섯 차례 연습경기를 치렀다. 성적은 2승 3패였다.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래도 전력의 윤곽을 가늠할 단서는 남겼다.

먼저 투수 운용 폭이 넓었다. 먼저 투수 운용 폭이 넓었다. 이 기간 총 31명의 투수가 기용됐다. 그만큼 투수진 전반을 폭넓게 살펴본 셈이다.

선발 후보부터 불펜 자원까지 다양한 투수들이 마운드에 올라 이닝을 나눠 소화했다. 특정 투수에게 많은 이닝을 맡기보다는 여러 자원을 두루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투수진 윤곽도 일부 드러났다.

'에이스' 네일이 견재한 가운데 황동하와 김태형이 5선발 경쟁에 불을 붙였고, 불펜에서는 김범수와 홍민규, 홍건희가 필승조 후보로 존재감을 보였다.

투구 스피드를 보면 직구 구속은 전반적으로 140km 초중반대를 유지했다.

일부 투수는 140km 중후반대까지 기록하며 캠프 후반으로 갈수록 구위를 끌어올리는 모습도 보였다. 변화구 또한 슬라이더와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이 함께 활용됐다.

타선 역시 여러 조합이 가능했다. 연습경기 기록상 경기마다 타순에 변화가 있었다.

주전과 백업 자원들이 번갈아 출전하며 컨디션 끌어올리는 흐름이 이어졌다. 특정 타순을 고정하기보다는 배치를 바꿔가며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특정 흐름은 일정하지 않았다. 경기별로 득점 편차가 나타났고, 연결이 자주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7일 일본 오키나와 긴 구장에서 마지막 스프링캠프 훈련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끊기며 안타 생산에도 기복이 있었다. 다만 때때로 터지는 폭발력은 위안으로 남았다.

특히 새 외국인 타자 카스트로의 장타력과 결정력이 일정 부분 확인된 점은 긍정적이다. 여기에 박민과 정현창 등 젊은 백업 자원들의 활약도 다가오는 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수비에서는 포지션을 오가며 선수 기용이 이어졌다.

연습경기 특성상 교체가 잦았고, 한 경기 안에서 포지션 변화가 반복됐다. 이는 다가오는 시즌의 긴 레이스를 염두에 두고 활용 가능한 자원

을 폭넓게 점검하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유격수 데일이 빠질 상황에 대비한 내야 운용의 유연성도 확보하려는 의도 역시 엿보였다.

이번 캠프를 이끈 이범호 감독은 "부상 선수 없이 캠프를 마칠 수 있어 다행이다. 어린 선수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캠프에 임한 점이 큰 소득이었다"며 "야수진의 선수층이 두터워진 점이 만족스럽고, 불펜 전력이 보강된 만큼 투수 운용에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도현, 정현창, 박민 등 젊은 내야수들의 기량이 올라와 고르게 선수들을 기용할 수 있

을 것 같다"며 "시범경기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 나가겠다"고 캠프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캠프 성과가 곧바로 시즌 구도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이르다. 시범경기를 통해 경쟁 구도와 역할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는 어디까지나 준비 과정이다. 다섯 차례 경기에서 드러난 기록들은 시즌 전력의 단면을 보여주는 정도에 가깝다. 8일 귀국한 KIA 선수단은 오는 12일부터 KT와의 홈 경기로 시범경기에 돌입한다.

/주홍철 기자

함평골프고 출신 이미향, 블루베이 LPGA 제패

8년 8개월 만에 우승·통산 3승...2026 시즌 투어 한국인 첫 우승자

함평골프고 출신 이미향이 8년 8개월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2026시즌 한국 군단의 우승 신화탄을 썼다.

이미향은 8일 중국 하이난성 쟈레이크 블루베이 골프코스에서 열린 블루베이 LPGA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 더블 보기 2개를 묶어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7타를 기록한 이미향은 2위 장웨이웨이(중국·10언더파 27타)를 한 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30만달러(약 5억8천만원)다.

1993년생으로 2012년 LPGA 투어에 데뷔해 2014년 미즈노 클래식에서 첫 승을 올렸고 2017년 7월 스코틀랜드 오픈에서도 우승했던 이미향은 8년 8개월 만에 트로피를 추가하며 LPGA 투어 통산 3승째를 수확했다.

이미향은 1월 말 막을 올린 2025시즌 LPGA 투어의 첫 한국인 우승자가 됐다.

블루베이 LPGA에선 2015년 김세영 이후 11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로 한국 선수가 우승했다.



이미향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혜진은 이날날 샷 이글을 두 차례나 기록했으나 두 타를 잃어 합계 7언더파 28타를 기록, 김아람 등과 공동 5위로 마쳤다. /연합뉴스

등록스포츠클럽 18곳 체육지도자 배치 광주시체육회, 특화된 전문서비스 제공

대한체육회 예산 4천만원 확보

광주시체육회 지역 등록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순회지도 사업을 시작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 국비 4천만 원을 확보한 광주시체육회는 66개 등록스포츠클럽 가운데 18개(동구1, 서구6, 남구3, 북구2, 광산구6)를 대상으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시민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진형 스포츠클럽 제도인 등록스포츠클럽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자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갈수록 지역 동호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갑수(사진) 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사업을 통해 빛고을 체육지도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는 전문적인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등록스포츠클럽이 늘어나고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등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전남체고 황윤미, 3·1절기념 전국도로사이클 MVP

여자 U-18 개인도로 '金'·개인도로 '銀'·크리테리움 '銅'

전남체고 황윤미(사진)가 제73회 3·1절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여자 U-18에서 금·은·동메달을 모두 석권하는 맹활약을 펼쳐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황윤미는 지난 6일 강진 일원에서 열린 여자 U-18 개인도로 44km 경기에서 1시간19분50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도로 68.6km 경기에서 2시간18분5초로 은메달을, 크리테리움 경기에서는 25분14초를 기록해 동메달

을 추가했다.

황윤미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과 3km 개인추발 동메달, 개인도로단체(시범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두각을 나타낸 데 이어,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출발을 알리며 올 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힘써 온 박현상 전남체고 지도자는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황윤미 /박희중 기자

정동 전남사이클 연맹 회장은 "황윤미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꾸준한 훈련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전남 사이클 유망주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선수 육성과 저변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김윤지, 동계 대회 한국 여자선수 사상 첫 금메달

바이애슬론 女 스프린트 좌식 12.5km 金...한국 원정 동계 대회 첫 금세이자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스타' 김윤지(19·BDH파라스)가 한국 여자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김윤지는 8일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동계 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km에서 38분00초1의 기록으로 사상 대만 위에 올랐다.

이로써 김윤지는 동계 패럴림픽 역사상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동시에 2018년 평창 대회 신의현(크로스컨트리) 이후 8년 만

의 금메달이자 역대 원정 동계 패럴림픽 첫 금메달을 한국 선수단에 선사했다.

전날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7.5km 경기에서 사격 실수로 아쉽게 4위에 머물렀던 김윤지는 이날 아쉬움을 완벽히 털어내는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쳤다.

2위 야나 비커(독일)를 12초8 차로 따돌렸고, 3위 캔달 그레이시(미국)와는 3초3 차를 기록했다.

패럴림픽에서만 총 20개(금 10·은 7·동 3)의 메달을 수확한 '살아있는 전설' 육사나 마스터스(미국)는 김윤지보다 47초8 뒤진 4위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8일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파라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km 결선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윤지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목에 모두 출전하는 김윤지는 오는 10일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시작으로 남은 4개 종목에서 추가 메달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



김경민이 지난 7일 열린 인천과의 경기에서 후반 종료직전 무고사의 패널리킴을 막아내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이정규 감독 첫 승 신고

홈 개막 인천전 3대2 승리

2026 시즌 광주FC 지휘봉을 잡은 이정규 감독이 첫 승을 신고했다.

광주FC는 지난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 개막전에서 최경록의 선제골, 신창무의 멀티골을 앞세워 3-2로 승리했다.

전반 3분 광주FC에게 돌발 악재가 터졌다. 심상민이 험스트림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나갔고 2007년생 공배현이 대신 투입됐다.

중반까지 내내 밀리던 광주가 37분 선제골을 기록했다. 우측면에서 신창무의 패스를 시작으로 주세종의 로빙패스, 김동현의 키 넘기는 최경록의 오른발 로빙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광주는 전반 종료 직전 오후성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1-1로 전반을 마쳤다.

광주는 후반 5분 패널리킴을 획득, 키커로 나선 신창무가 마무리하며 다시 앞서갔다.

분위기를 잡은 광주는 후반 26분 추가골로 승리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신창무가 후반 26분 왼 측면에서 온 하승운의 크로스를 환상적인 왼발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 했다.

광주는 막판 거센 반격에 나선 인천에게 후반 추가시간 6분 실점하며 흔들렸고, 설상가상 종료 1분전 이정규에게 패널리킴을 내주며 동점 위기에 몰렸다.

절체절명 위기에서 끝까지 김경민이 무고사의 슈트를 막아내며 값진 승리를 쟁겼다.

/박희중 기자